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6월 교육 내용	04
❁ 6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6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6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6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6월 추천도서	56
❁ 6월 위드스티커	57
❁ 6월 교육활동지	59





암송 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첫째주♥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11)

*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해요.

♥둘째주♥

“베드로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요.

♥셋째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75)

*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넷째주♥

“참 사도가 된
베드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요.

실천 내용

1.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해요.
2.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요.



Memory Time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첫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누가복음 5:11

♥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 누가복음 5:1-11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 말씀 나눔

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나요? (5절)

② 본문에 나온 어부였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나요? (11절)

★ 교육활동 - “내가 가진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

준비물: 워드 활동지, 연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5가지 적어보세요. (예) 인형, 컴퓨터, 게임기, 이불, 돈, 시계, 사탕, 과자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예수님! 이라고 고백해 보고, 항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첫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11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열왕기상 10:1-10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혀 두 배에 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초대에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로 살아가요!

Q 1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토론하기

Pray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족이 되길 기도해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39:1-23 “함께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12.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 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났다.

(생략)

19.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올랐다.
20.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21.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 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2.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 말씀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행패 : 체면에 어그러
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함

with
관찰

1. 누명을 쓴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에 가두었다.”

2.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한 분은 누구신가요? (21, 23절)

스 L

with
생각

요셉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하여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하인이 되었지요.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어요. 요셉을 지키시고 그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with
결심

요셉은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인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갈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히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에 있던 함께 하셨듯,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나에게 더욱 큰 힘과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0:1-23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3.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4.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듣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5.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6.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7.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생략)

21.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22.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시종장**: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 **해몽**: 꿈에 나타난 일을 풀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함

with
관찰

1. 요셉은 누구의 꿈을 해석해주었나요? (2,7,8절)

시종장,

시종장

2. 말씀내용과 다른 것 하나를 고르세요. (5-8, 21-22절)

- ① 두 시종장의 꿈 내용은 달랐다.
- ② 요셉은 두 시종장에게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해보겠다고 하였다.
- ③ 술 시종장은 자신이 일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 ④ 빵 시종장은 처형당했다.

with
생각

요셉이 간혀있는 감옥에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죄를 지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시종장은 꿈을 꾸게 되었고, 자신들이 꾸었던 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꿈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었어요.

with
결심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시종장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1:1-36 “하나님의 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로부터 만 이 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생략)
8.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꾸은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9. 그 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합니다."
10.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여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11.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꾸은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13.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14.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 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1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현인: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

복직: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함



with
관찰

1. 술 시종장은 언제 요셉을 생각해 내었나요? (9절)
 - ① 잠을 자다가 생각났다.
 - ② 술 시종장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 ③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때
 - ④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때
2.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는 것이라 하였나요?
(16절)

하 나 나

with
생각

술 시종장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것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술 시종장은 요셉을 새키망게 까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술 시종장은 잊고 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술 시종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이야기하여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고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1:37-57 “영광 받으실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7.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38.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생략)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42.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43.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44.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생략)
50.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흥년이 들기 전이었다.
51.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만아들의 이름을 으났세라고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38절)

의 이 함께 하는 사람

2. 요셉은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의 의미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나요? (51-52절)

ㅎ ㄴ ㄴ

with
생각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준 요셉에게 바로 왕과 신하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일을 맡겼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with
결심

요셉은 이집트에 아무 이유 없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알맞게 요셉을 살리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나의 기도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마태복음 16:16 -





Memory Time



베드로의 고백

둘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마태복음 16:16

♥ 오늘의 주제 : 베드로의 고백 ▷ 마태복음 16:13~19

♥ 오늘의 포인트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1.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14절)

○ ○ , ○ ○ , ○ ○ ○ ,
○ ○ ○ ○ 나 선지자중 하나

2.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16절)

“주는 ○ ○ ○ ○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 ○ 이시니이다”

★ 교육활동 - “북한선교대회 아동부 공모전(그리기)”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둘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오늘의 포인트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13-19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의 본문에 있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아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에 흡족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말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말로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Q 1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Pray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2:1-25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2.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3. 그래서 요셉의 형 열 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4.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팔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생략)
6. 그 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7.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8.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9. 그 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 꾸어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यो.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려 온 것이 틀림없소!" (생략)
13.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14.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15.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यो.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16.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 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17.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보냈어요. 이 때, 야곱은 아들들 중, 누구를 빼고 보냈나요?(4절)

2.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형들임을 알아차렸지만, 요셉이 꿈 꿈을 기억하고 그들을 무엇으로 몰아세웠나요?(9절)

with
생각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1명의 아들 중, 베냐민을 뺀 10명만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 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 요셉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어요. 요셉은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창37:7,9)을 떠올리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대하며,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던 그때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은 형들에게 식량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단,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옥에 남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통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요셉에게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라며 괴로워했어요.

with
결심

요셉은 오랜 시간동안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 살았지만,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을 때,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는지 알기 위해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알아봐주시고 이해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2:26-38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6.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27.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나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28.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29.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 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생략)
35.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 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36.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38.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다른 것을 찾으세요.
 -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고향집으로 떠났어요.(26절)
 -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그 동안 겪은 일을 다 말했어요.(29절)
 -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베나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 한 뒤 돈을 받았어요. (28절)
- 야곱에게 반드시 베나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요?(37절)

with
생각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받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잠잘 곳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에게 식량을 사기 위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한탄하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어요.(28절) 그리고 그 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29절)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베나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도 전했어요. 야곱은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나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서 근심하며 반대했어요.

with
결심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식량과 함께 돈도 자루에 넣어 보냈어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자칫,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주 큰 시련에 빠진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도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상황, 형제 시므온을 이집트에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 심지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상황까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였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3:1-15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2.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생략)
8.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9.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10.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11.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를 담아라.
12. 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13.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14.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 있는 아이와 베나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15.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나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야곱의 아들 중,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내를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8-9절)

□ □

2. 야곱이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가기를 허락한 후, 요셉에게 가지고 간 선물을 모두 적어보세요.(11절)

□ □ , □ □ □ □ □ □ □ □
□ □ □ □ □ □ □ □

with
생각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 오라고 말했어요. 그 때, 유다가 말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데리고 가게 허락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재촉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유다의 재촉에 미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자루에 넣어가서 선물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며 막내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9절)라고 말하며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결국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세우게 되었어요.(15절)요셉과 베냐민이 만나게 된 것은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희생적인 태도를 갖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희생정신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3:16-34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17.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생략)
24.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25.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26.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27.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었다.
28.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고, 평안 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29.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30.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31.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생략)
33.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막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34.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집 관리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했나요? (17절)

2.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난 뒤, 그 다음 누구의 안부를 물었나요? (27절)

with
생각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 식량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을 누가 넣어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스란히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관리인은 시므온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돈은 이미 다 받았다고 말했어요. 정오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오자, 형제들은 가지고 온 선물을 그 앞에 내 놓으며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과거에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이십에 팔아 넘긴 형제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며 함께 식사를 한 것이예요.

with
결심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심지어 은 이십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사람이었어요.(창37:22,28) 그로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마치 원수와도 같은 형제들을 벌하며 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져요. 요셉의 이런 선한 행동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벌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갖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마태복음 16:16 -





Memory Time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셋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75

♥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마태복음 26:31-35, 69-75, 요한복음 21:15-17

♥ 오늘의 포인트 :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 말씀 나눔

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70절, 72절, 74절)

○ 번

②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뒤 어떻게 행동했나요? (75절)

“밖에 나가서 심히 ○○하더라”

★ 교육활동 - “하트 모자이크”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트 안에 색종이 조각을 붙여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마태복음 26:75

♥ 오늘의 포인트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26:75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 척 하고 말았던 것이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부족한 자신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슬픔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요. 예수님께 기회를 얻은 베드로는 부족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여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모른척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도가 된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요.



Q 1 사랑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 사도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4:1-34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7.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8.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9.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10.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11.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12.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13.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15.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16.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호통 :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꾸짖음



with
관찰

1. 누구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었나요?(12절)

□	□	□
---	---	---

2. 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어떻게 했나요? (13절)

- ① 자신의 자루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에 기뻐하며 돌아갔다.
- ②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돌아갔다.
- ③ 짐을 버리고 도망쳤다.
- ④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다.

with
생각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했어요. 시험의 목적은 20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어요. 요셉 앞에서 유다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유다는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며,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with
결심

살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책임감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5:1-28 “요셉은 용서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 소리가 어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시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자책 : 스스로 책망함



with
관찰

1. 요셉의 울음소리는 어디까지 들렸나요? (2절)

사람들과 의 궁

2.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

“...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with
생각

형들에 대한 시험을 마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요. 자신들이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은 요셉에게 용서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였어요.

with
결심

요셉은 형들의 잘못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들의 잘못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6:1-34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2.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5.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6.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7.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야곱)은 어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나요? (1절)

□	□	□	□
---	---	---	---

2.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3절)

“...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 □ □ 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 □ 이 되게 하고”

with
생각

이스라엘(야곱)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기 위해 가나안을 떠났어요. 브엘 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이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길을 떠났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예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집트로 가기 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7:1-31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8.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9.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햇수가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햇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햇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0.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11.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12.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생략)

2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28.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열일곱 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백마흔일곱 살이었다.
29.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호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30.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 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1.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끝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연세 : 나이

with
관찰

1. 야곱은 바로 왕에게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나요? (9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월
----------------------	----------------------	----------------------	----

2. 야곱은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바로 왕을 만날 때 130세였고, 147세까지 살았어요.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나요? (28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	----------------------	---

with
생각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는 고센 지역에 가장 좋은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도록 해주었어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어요. 이집트에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딛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예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까지 오게 된 야곱의 가족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축복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마태복음 16:16 -





6월 넷째주
2020년 6월 28일~7월 4일



Memory Time



참 사도가 된 베드로

넷째주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오늘의 주제 : 참 사도가 된 베드로 ▷사도행전 3:1-10

♥ 오늘의 포인트 :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요.

★ 말씀 나눔

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3절)



② 말씀을 읽고 다음의 빈 칸을 채워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 과 ○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 ○ ○ 의 ○ ○ 으로 일어나 걸으라”

③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7-9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면을 상상하며 대답해 봅시다.

★ 교육활동 - “더 깊은 말씀 나눔”

위의 질문들로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베드로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오늘의 포인트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참 사도가 된 베드로 ▷마태복음 5:1-12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는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지요. 그 문 앞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걸을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미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러 가기 위해 ‘미문’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6절, 새번역).”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걷고, 뛰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훌륭하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능력을 함께 나눠봅시다.

Pray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48:1-22 “뒤바뀐 장자의 축복”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18.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이야,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겨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겨레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20. 그 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목자: 양을 치는 직업
(아끼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겨레: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 민족



with
관찰

1. 야곱은 요셉을 위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나요? (15-16절)

“...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가

되어주신 하나님, ... 이 아이들에게 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7-20절)

- ①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못마땅했다.
- ②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다.
- ③ 요셉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달라고 하자, 야곱은 그렇게 했다.
- ④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with
생각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요. 손을 얹어 축복하는데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이 비껴있다고, 장자의 축복이 있는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한다고 말해요. 아예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을 말해요. 이 축복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with
결심

장자의 축복권이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갔어요. 당시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은 맏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사람의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9:1-33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3.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4.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5.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6.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여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7. 그 노여움이 흑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다.
8.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목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9.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옆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영예 : 영광스러운 명예

노여움 : 화나는 마음

with
관찰

1.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놓고 무엇을 말해주었나요? (1절)

“...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2. 야곱은 유다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여 축복했나요? (9절)

사

with
생각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어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말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2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과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
할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50:1-14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 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6.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8.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9. 거기에서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 만하였다.
10. 그들은 요단 강 동쪽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11.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 강 동쪽이다.
12.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13.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14.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 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선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이르는 말

원로: 벼슬(계급)이 높은 사람

호곡: 소리를 내어 슬피 울음

애곡: 소리 내어 슬프게 울음

with
관찰

1. 야곱은 죽거든 어디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유언했나요? (5절)

“... 내가 죽거든, 내가 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2.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며칠 동안 애곡했나요? (10절)

동안

with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후,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전해요. (창49:33)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야곱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곱이 죽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치러하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죽은 야곱을 위해 슬퍼하며 울어요.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그 누구보다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죽음까지도 함께해주셨어요. 야곱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50:15-26 “위로하고, 용서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양감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6.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17.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18.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20.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양감음 :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함
전갈 :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함

with
관찰

1.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떤 걱정을 했나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 ...”

2. 요셉은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셨습니다. ”

with
생각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불안해졌어요. 어린 시절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다시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
지요. 이에 요셉은 눈물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어요.

with
결심

요셉은 형들로 인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
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이사야 41:8-10, 새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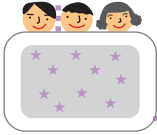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아(야), 잘 잤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말씀이란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도와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격려하고 있어. 이 약속과 희망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에게도 주신 말씀이란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 내어 살아가길 바라. 그럼 같이 기도할까?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오늘을 보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씀 <로마서 8:26, 새번역>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아), 오늘 ○○(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하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니?

오늘이 가기 전에 엄마(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니?

엄마(아빠)가 대신 들어줄게 얘기해봐. (들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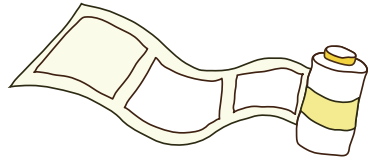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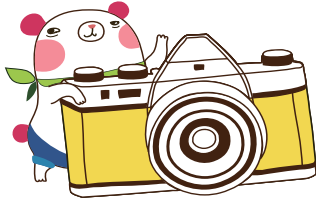
○○아(아)! 엄마(아빠)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도 늘 대화하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기도해주신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대화하자! 우리 그럼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

“○○(이)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를 ○○(이)가 잘 보내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주시고 받아주시지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하나님께, ○○(이)도, 저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착하고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니스트 PHOTO



유년1부



2-4 장규화

유년1부



찬양 2-3 김소울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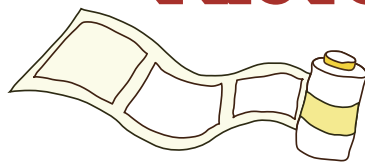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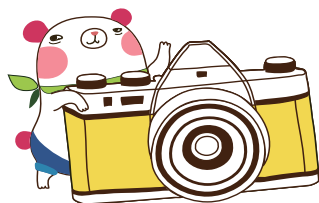
찬양2-3 김유주

유년2부



2-2 이은울

유년의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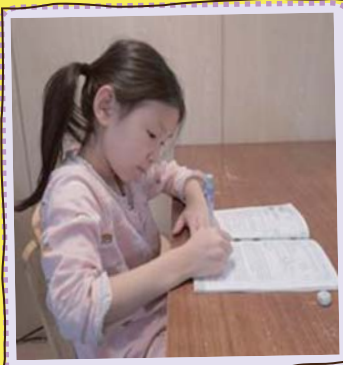


유년2부



2-5 유하준

유년2부



2-10 이하울

유년2부



2-11 강은우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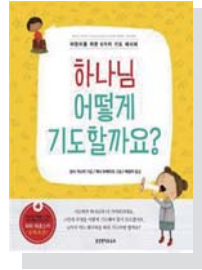


2-11 이원준



6월

제목 :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글 / 낸시 거스리
번역 / 배정아
출판사 / 생명의 말씀사



기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 편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기도에도 요리처럼 레시피가 있다면 배워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해 6가지 기도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등 기도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말씀과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지는데요, 이 책은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과 함께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기도문도 적혀 있어요.

한꺼번에 이 책을 읽기보다 잠들기 전 또는 아침 하루에 한 장씩 이 책을 읽고 기도문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 덧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며 각 장에 맞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 해준다면 분명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가까워져 있겠지요?

6월 STICKER

Bible study!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6월 첫째 주

“내가 가진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four horizontal blue lines for writing. It is decorated with four red hearts: one in each corner.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예수님!





6월 셋째 주

“하트 모자이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마태복음 16:16 -



